

결핵의 예방과 치료

윤영자/결핵 서울지부 복십자의원 부원장

전쟁의 상처와 더불어 창궐하였던 결핵으로부터 그동안 결핵퇴치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워 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운 결핵문제들은 우리가 과거의 성과에 더이상 안주하고 있을 수 만은 없게 하고 있다.

지난 '90년 제6차 전국결핵실태조사 결과 5세이상 인구의 흉부 엑스선상 유병률이 1.8%로 크게 저하되었지만 아직도 73만여명의 많은 결핵환자가 있으며 이중 위험한 전염원이 되고 있는 환자수는 9만 5천명에 달하며 매년 5천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일반국민과 환자들은 결핵을 경시하는 풍조와 최신 결핵약제에 대한 과신, 남용, 부적절한 처방 등으로 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하기가 어려운 난치성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핵이란 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결핵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과 이웃을 파멸로 이끄는 병이란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결핵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내용을 특성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1. 결핵균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밝혀져 있다.

이러한 결핵균은 지방성분이 많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막대같이 생긴 간균(杆菌)으로 증식속도가 매우 느려 한번 분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18~24시간 정도 걸릴 뿐만 아니라 세포벽 때문에 균이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객담(침)방울 속에 섞여 나온 균이 건조된 객담비말핵(미세한 침방울)속에 실려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숨쉴때 흡입되어 폐속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열과 빛에는 다른 균들처럼 약하다.

2. 결핵의 감염과 발병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또는 말을 할 때에 결핵균이 그 침방울에 섞여서 공기중으로 나와 그중 침방울의 수분은 바로 증발해 버리고 결핵균만이 공기중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허파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전염(감염)이 되는 것이다.

그외의 경로로도 결핵균 배양이나 부

검시에 상처난 피부를 통하여 생균이 직접 접촉되어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결핵환자가 사용한 식기, 의복, 침구, 책 및 가구 등과 같은 환자의 소유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런 물건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핵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병이 생기지 않은 채 지내게되며, 감염자의 5~10% 정도에서만 발병하게 된다.

과거에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 있던 사람이거나 비시지접종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결핵에 대한 면역이 생겨있기 때문에 새로 감염이 되더라도 발병하는 일이 많지 않으나 비시지접종을 받지 않고 감염도 안되었던 사람은 결핵에 대한 면역이 없는 관계로 감염이 되면 결핵균이 몸 안에서 증식하여 발병할 수가 있다. 또 초감염 결핵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람의 대부분은 일생동안 발병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지만 일부는 감염된지 여러해가 지난후에 발병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보는 성인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발병하는 것이다. 또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수가 많은데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영양부족상태, 당뇨병 그밖의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인체의 면역력을 파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에이즈(AIDS)의 경우 초감염 이후 체내에 남아 있던 결핵균이 다시 살아나서 결핵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프리카 에이즈환자의 상당수가 폐결핵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AIDS가 전세계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

큼 우리 스스로 결핵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결핵의 증상과 진단

결핵이 발병되더라도 병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수도 많다. 때로는 진행된 폐결핵인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병이 생긴 것을 확인한 연후에 돌이켜 보면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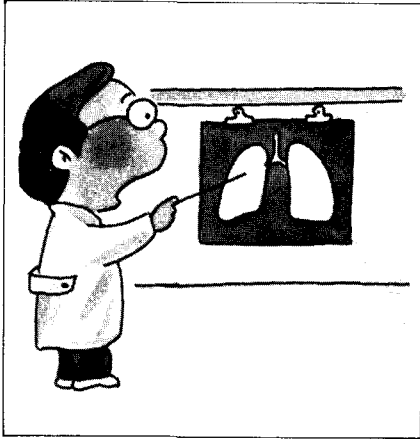
결핵의 증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병이 진행될수록 대체로 증상도 두드러지게 된다.

결핵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째, 계속해서 오랜기간에 걸쳐서 기침이나 가래가 계속된다. 둘째, 혈담이 나오거나 각혈을 한다. 셋째,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다. 넷째,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감소와 미열이 있거나 잠잘때 식은 땀을 흘리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증상은 환자 모두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한달 이상 기침이 계속될 경우 25명중에 한사람은 결핵이며, 한달이상 가래가 나오면 33명중 한사람은 결핵,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면 11명중 한사람 정도는 결핵으로 판명되고 있어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진찰을 받아 결핵의 발병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결핵의 발병(주로 폐결핵)여부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 검사가 이용된다. 첫째,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가 있다. 이는 결핵균을 배양한 후 균의 용해성단백질성분을 정제하여 만든 항원(PPD)을 팔의 안쪽 피부에 주사한 다음 48-72시간 후에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우리나라같이 결핵유병률이 높은 경우 소아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나와도 객담검사나 흉부X선 검사가 정상이면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비시지 결핵예방접종을 받으면 결핵균에 감염이 안되었더라도 반응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결절의 크기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둘째, 엑스선사진검사는 투베르쿨린 검사만으로는 결핵이 발병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특히 성인의 경우는 흉부 엑스선사진을 찍어보아야 한다.

셋째, 객담검사는 폐결핵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 결핵 이외의 다른 질병과 구별이 확실치 않거나 과거에 폐결핵을 앓고 나온 흔적인지 현재 치료를 요하

는 상태인지 불분명한 경우, 활동성 유무를 가리기 위해 객담을 받아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현미경학적으로 확인해 보는 검사이다.

그 방법으로는 가래를 슬라이드에 얇게 발라서 결핵균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직접도말검사방법과 결핵균을 배지에 접종해 증식시켜 관찰하는 배양검사법이 있다.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결핵균에 대해서 어떠한 결핵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약제감수성검사방법이 있다.

가래에 결핵균이 발견되면 결핵이 발병했음에 틀림없으나 가래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엑스선사진상 공동이 있거나 뚜렷한 폐침윤이 있는 경우 결핵이 발병된 것이므로 항결핵약제의 치료는 받아야 한다.

그밖에 활동성여부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객담검사를 3회이상 실시하거나 수개월간 간격으로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4. 폐결핵의 치료방법

과거에 폐결핵의 치료는 안정, 영양, 신선한 공기를 주축으로 하는 자연요법과 허탈요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좋은 항결핵제가 나온 후로는 약물요법이 결핵치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는 현재와 같은 좋은 치료약제가 없어 가족 또는 이웃에 대한 전염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이나 병원에 격리해서 입원치료 하였으나 이제는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전염성이 곧 없어지므로 구태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환자와 다른 방을 쓴다든지 식기나 수저 등을 소독한다든

지 하는 일은 필요가 없다. 또한 지나친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육체노동, 부부생활 등은 결핵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증세가 심하지 않거나 특별히 쇠약한 상태가 아니라면 임신도 상관없으며, 치료를 시작해서 전염성이 없어진 상태라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도 무방하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결핵환자는 자기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병을 완치시킬 수 있으나 일부 증상이 심한 환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결핵치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자연치유만을 바라던 폐결핵의 치료가 이제는 약물요법 치료로 인해서 거의 재발없이 대부분 완치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핵은 다른 질병보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함으로 환자 자신의 부주의 또는 그릇된 치료에 의해 병을 더욱 악화시켜 평생을 고생하는 난치성환자로 되는 일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막고 결핵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결핵치료의 원칙

- 약의 처방이 적절해야 한다.
-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
- 마음대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처방된 기간동안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와같이 3가지 결핵치료의 원칙을 지키면 거의 틀림없이 결핵을 완치시킬 수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원칙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치료에 실패하여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료실패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결핵치료에 실패하는 원인

- 의사의 처방이 아닌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핵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면 치료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곧 약이 듣지 않게 된다. (부적절한 약의 선택)

- 결핵약을 복용하다 도중에 중지하고 또 복용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는 굳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 (불규칙적인 약의 복용)

-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증상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결핵이 다 나은 것으로 잘못알고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의 지시없이 중단해 버리면 얼마 안가서 병이 재발하여 치료실패 원인의 또하나가 된다. (치료 조기 중단)

이러한 원칙 이외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당뇨병 등의 합병증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치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핵도 치료가 잘 안된다.

또한 약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환자가 참고 견디어야 할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복용을 중지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치료기간 중에는 병의 경과와 치료정도를 알기 위해 2~3개월 간격으로 객담검사와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